

편집국에서



김기현
편집국장

제주의 '먹거리 산업'들이 줄줄이 고전하면서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 1차산업이 마늘 양파 양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하반기에는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다 감귤과 양식광어, 돼지고기 등의 가격하락으로 바다세다. 여기에 건설경기 부진, 기대에 못 미친 관광산업 등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슬렁이고 있다.

현 시점에선 1차산업의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건설, 관광업 역시 빠른 시일내 과거 호황

제주경제,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을 기대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최근 제주 주력산업인 양식광어, 돼지고기, 감귤에다 삼다수 등의 가격 하락세를 보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민횡감'으로 불리는 양식광어는 수출감소와 소비시장 둔화로 작년부터 가격 하락세를 보이자 급기야 제주도는 사육중인 중간크기 광어(400~600g) 200t을 연 말까지 수매후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제주산 돼지고기도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kg당 도매가격 4000원대로 급락세를 보였다.

제주의 대표 생산품인 삼다수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볼 정도로 유명세를 탔지만 2015년부터 줄기 시작하다 작년말 기준 39.8%까지 감소했고, 이달에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브랜드 출시이후 처음으로 '1+' 행사를 진행할 정도다.

본격 수확을 앞둔 노지감귤은 올해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6만1000t이나 많은 52만8000t으로 예상되고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돼 가격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 농업은 이미 마늘 양파 양배추 등의 가격 폭락으로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은 불투명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도내 건설경기는 최근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가가 올 9월까지 집계한 결과 도내 종합건설사 신규 도급 공사는 404건, 계약 금액 3459억6500만원으로 도급액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9.0% 감소했다. 이 중 민간공사 도급액은 1014억원(10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86억원(125건)에 비해 51%나 감소했다. 관련업계는 민간공사 감소와 관련,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창업 열기도 시들었다. 올해 1~8월 도내 창업기업은 1만358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81개에 비해 11.1%나 줄었다.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위축 속에 창업자들이 창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제주는 관광산업 수요에 힘입어 경제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지만 관광업 역시 아직 활황을 예상하기엔 이르다. 사드사태 이후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올 9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20% 이상 늘며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국내관광객이 여전히 미진하면서 지역 관광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제주경제의 위기는 최근 국내 경제 침체에 기인하지만 별도로 각 산업별 구조조정작업을 비롯한 선제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행정 관련단체 생산자 등의 각별한 분발을 기대한다.

뉴스-in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논란 재점화 전망

“자질 갑론을박 사라질 것”

○…김성연 정부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원희룡 지사가 31일 임명하면서 청문회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30일 실시된 청문회에서 도의회 인사특위는 '적격' '부적격'을 떠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이란 종합평가로 인사권자인 원 지사에게 공을 떠넘긴 양상. 향간에는 지명때부터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적인 역할만 가능하다면 자질에 대한 역할은 갑론을박만 난무한 채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비등. 조상윤기자

“조류 충돌 가능성 적어”

○…국도교통부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혀.

전날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입지 인근에 철새도래지 등이 있어 입지 타당성이 낮다고 검토의견을 낸 것이 논란이 되자 이같이 설명.

국토부는 초안협의시 철새 현황을 조사했고 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하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부미현기자

문에재단 온라인 의견수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0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채널 '랜선아트 인터뷰 2020'을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가동.

'랜선 아트 인터뷰 2020'은 문예재단이 매년 공모해 지원하고 있는 예술지원사업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채널로 시대 흐름에 맞춰 예술지원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목적.

오프라인 라운드테이블도 병행할 예정인 문예재단은 “예술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점언. 전선희기자

사설

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획기적 농정 기대

제주에서 농업분야 관련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농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가뜰이나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농정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습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정부의 농정을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정들은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들은 특정 작물 집중, 농촌 양극화,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농업틀인 '공익기여지불'을 확대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값싼 농산물이 몰입듯이 들어오는데 당해낼 수 없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을 흘린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들면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또 기상에 따라 농사가 좌우되니 시름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을은 유례없는 기상악화로 한해 농사를 거의 망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산입니다. 그러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외면 철저한 점검 나서야

제주도정의 주요 교통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통유발부담금제가 길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 활동을 꾀했다고 신청한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내던 10월부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행한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인 1040개 사업장 중 74곳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16억8000만원으로 서귀포시 총 부과액(45억8200

만원)의 35.1%에 이릅니다. 이들 사업장은 부제 운행이나 자전거림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이행계획을 신청만 해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량 감축 계획은 나뉠라한 채 부담금만 감면받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행계획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도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위반사업장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당국 역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정의 교통정책은 사전 준비 소홀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등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꼼꼼히 대비하지 못한 탓이 큼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보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열린마당

제주 해녀의 건강을 지키는 복권기금



오인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제주 여성은 해녀를 천직으로 살아 왔다. 제주 해녀문화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2017년)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해녀란 직업은 하루 4~5시간 이상 고된 물질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녀의 대다수가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기준 제주도 해녀의 수는 전·현직을 모두 합쳐 9101명으로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현직해녀의 수는 3898명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

상이 2312명으로 가장 많고, 60~69세 1169명, 50~59세 337명, 40~49세 52명, 39세 이하가 28명으로 해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제주 해녀 그 삶의 환경생리학적 보고' 논문에는 따르면 제주 해녀들의 잠수병으로 인한 질환의 비율은 관절통 38.1%, 두통 및 어지럼증 25%, 심장병 10.2%, 기타(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26.7%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위험하고 고된 물질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기금이 일조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약 311억원의 복권기금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도 55억6900만 원이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로 지원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9101여 명의 해녀가 진료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복권기금은 제주도 해녀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소중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데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용남(前 중등교사) 어머니 경주김씨 **효순(향년 95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31일 09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2일(토)
▶발인일시: 2019년 11월 3일(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아들 김용남 며느리 양윤실

시남 김향선

딸 김신자

손자 김태형 손녀 김미형

태오 수아

연희

※연락처: 김용남 010-3699-7133
김신자 010-2925-3356
양윤실 010-5722-7133
김향선 010-7387-5677

부고

양재표(상하수도본부) 할머니 김해김씨 **인봉(향년 104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31일 2시 4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2일(토)
▶발인일시: 2019년 11월 3일(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101호 분향실
▶장 차: 애월읍 고성리 선영

아들 양태원 며느리 김영이

딸 양춘호 사위 부규훈

손 양재표 손 고윤희

양재운 고영천

양은정 고일천

신원식 신동규

신원순 신동천

부민호 부민석

※연락처: 부규훈 010-3693-4442
양재표 010-4176-6366
하귀농협병원 장례식장 798-88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한양조씨 선옥(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1일

아들 김도현 며느리 김순덕

도준 오명금

태형 은은애

딸 김여정 사위 김선홍

명신 김호방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윤승환(1976. 8. 6생)
·최후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22 (상양일동)

상기자는 2019년 6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제주지방법원 원 2019-단1022 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도 고마로 54, 603호 (일도이동, 평화이파트 2차)

2019년 11월 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윤서연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자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브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